



도서관의 자료 보존 활동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글 | 서혜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hhsuh@silla.ac.kr

들어가며

조선시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1392~1863년)에 걸쳐 정치, 외교, 법률, 제도는 물론 경제, 사회, 풍속,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그 포괄범위의 방대함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관의 독립성과 사초의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구나 『조선왕조실록』은 국역과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역사서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자 기초자료로서 살아있는 기록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러한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선조들의 지극한 보존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은 전쟁과 화재 같은 재난을 당해 소실되는 등 숏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를 하고, 복본을 만들어 산중에 설치된 사고에 분산 보존하는 지혜와 열정 덕분에 조선왕조의 기억이 후대에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도서관은 인간의 온갖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수집하고 활용시키고 보존함으로써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이어나가게 하는 ‘기억기관(institute of memory)’이며, 사서는 그 ‘수호자’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자발적

으로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고 그 과정을 기록한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를 남긴 조선의 선비 안의는 우리 사서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대선배인 셈이다.

오늘날 도서관은 내외에 걸쳐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고, 그에 따라 도서관이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도서관자료 보존에 관련된 과제의 성격도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보존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통적 매체와는 다른 차원에서 디지털자료 보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서관자료 보존의 개념과 유형

도서관자료의 보존은 도서관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기본적인 기능에 속한다(Feather and Lusher 1989, 129). 그렇지만 ‘보존’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대체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의 자료보존 활동을 자료의 훼손을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장서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개념이 확장되었다. 즉 도서관의 자료보존 활동에는 관련정책의 수립, 보존환경의 통제와 서고 공간의 확보, 매체변환, 수리와 복원, 재난대책, 협력 활동, 직원훈련, 재정 등 도서관자료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포함된다.

도서관자료의 보존은 그 시점에 따라 예방적 보존(preventive preservation)과 현상적 보존(active preservation)으로 구분된다. 예방적 보존은 자료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는데 목적을 두는 미래지향적 개념인데 비해서, 현상적 보존은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처리하는 소급적 개념이다. 전자의 예로는 서고환경의 통제라든가 재난대비계획의 수립 등을, 후자의 예로는 자료의 수리와 복원 등을 들 수 있다.

도서관자료의 보존은 그 대상에 따라 형태보존과 내용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이에 인쇄된 도서의 내용을 보존하려면 복사를 하거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거나, 디지털화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반면에 형태를 보존하려면 탈산처리를 하거나, 제본을 다시 하거나, 또는 보존용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도서가 이미 훼손되었다면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동원하여 복원처리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태보존은 희귀하거나,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또는 미적 가치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대비 보관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난 신문을 마이크로필름화하는 도서관계의 오랜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 『Double Fold』를 출판한 미국 작가 베이커

(Nicholson Baker)와 도서관계 사이에 일어났던 2001년의 논쟁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내용보존이냐 형태보존이냐를 결정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서관자료의 보존 전략

종이자료의 보존을 위한 대안

어떤 매체에 기록되어 있든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된다. 그것은 매체 자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온도·습도·빛·대기오염·미생물 같은 환경 요인,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이나 테러 등 인재, 잦은 대출과 복사 같은 자료이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활동이 도서관자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대표적인 도서관자료인 종이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절한 보존환경의 유지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자료보존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보존환경의 기준은 매체별로 다르지만, 도서관자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쇄자료의 경우 대체로 온도는 18℃ 내외, 상대습도는 50% 내외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자외선 차단과 방진, 방충 조치도 기준에 합당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재난대책의 수립

도서관에서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전쟁과 테러, 각종 사고와 도난을 포함해서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조치를 강구하며,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행동요령이 미리 계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 훈련을 통해서 도서관직원들에게 주입되도록 해야 한다.

■ 업무관행의 개선

하비(Harvey)(1993, 7)는 도서관의 일상 업무 대부분이 보존개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존 업무절차를 간단한 보존 개념을 고려하여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보가 가능하

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자료와 도서관의 청결 유지, 올바른 자료 취급,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 서고와 열람실 내 흡연과 음식물 반입 금지, 이용자에 대한 자료취급 방법 교육 등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모든 도서관직원들이 자료보존에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체변환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손상이 예상되는 도서관자료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한 매체로 옮기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마이크로물화는 공간절약성, 신뢰성, 경제성, 안정성에서 장점이 있지만 검색과 활용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반면에 디지털화의 최대 장점은 원문검색 기능과 색인기능을 활용한 강력한 접근성에 있다. 이 때문에 보존과 접근은 상반된 개념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자료의 장기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화는 비용문제나 디지털자료의 기술의존성과 매체의 휘발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 탈산처리

종이자료 훼손은 상당 부분 재료 자체와 제조법에 기인한 산성화 탓이다. 탈산처리는 종이의 산성을 중화하고 여기에 알칼리 성분을 첨가하여 종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산이나 외부에서 침입할 가능성이 있는 산으로 인해 생길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종이자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화학적 처리 방법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탈산처리 기법이 개발되고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탈산처리는 아직 상태가 양호한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미 상당히 훼손이 진행된 자료를 복원시키는 전략으로 채택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수리와 복원

내재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단 손상이 진행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손상 정도와 보존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및 기술적 판단을 거쳐서 적절한 수리 또는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리와 복원 작업은 그 정도(精度)와 기법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자료보존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도서관이 수리와 복원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국가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 공간 부족의 해결 방안

도서관에 따라 심각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정된 공간 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도서관자료를 보존하게 되면서 대부분 공간 부족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나의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더 이상 불필요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혹은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도서관 공간의 일부를 보존서고로 할당하여 밀집서가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바코드나 RFID를 적용한 자동서고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개별 도서관들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각자 소장 자료를 보존하게 되는데, 그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중복투자 부분이 많아지며, 규모의 경제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보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많은 공동보존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르웨이국가도서관이 모이라나(Moi Rana)에 설치·운영하는 보존도서관은 국가차원의 사례이며, 호주의 비영리기관 CAVAL이 운영하는 CARM Centre는 관중 및 지역별 사례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법」 제23조 제4호에서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디지털자료의 보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면서 도서관자료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서관은 CD와 DVD 같은 형태가 있는 디지털자료는 물론이고 온라인과 웹, 그리고 모바일 기술을 통한 무형의 디지털자료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며 보존해야 한다.

디지털자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종속적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담긴 정보를 후세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그것의 장기보존은 종이자료로 대표되는 기존의 아날로그자료와는 다른 차원의 과제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기

관·국가·지역 단위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 재정적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오며

모든 도서관은 도서관 장서를 보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다만 도서관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서 도서관이 감당해야 할 보존 활동의 수준과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독서와 정보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지역 공공도서관에게 부여되는 자료 보존 책임은 국가도서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두 유형의 도서관들은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접근성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지역 공공도서관에게는 그 기간이 길어야 ‘몇 년’ 인데 비해서 국가도서관에게는 ‘영구’ 또는 ‘가능한 한 긴 시간’이라는 차이가 있다.

도서관 자료 보존 활동에는 자료의 ‘격리’와 ‘접근제공’이라는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적용될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미이라의 예에서 보듯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철저한 차단과 폐쇄는 보존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접근과 이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배치된다. 반면 도서관 자료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허용은 자료의 파손과 훼손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 이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도서관 자료의 보존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보존이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도서관 자료의 가용성 확보야말로 보존의 궁극적 목적이다.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와 미래의 자유로운 자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자료 보존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서들은 조선시대의 선비 안의이면서 동시에 그를 뛰어넘는 존재가 된다. ❶

[참고문헌]

Conway, P. 2010. "Preservation in the Age of Google: Digitization, Digital Preservation, and Dilemmas," *The Library Quarterly*, 80(1): 61-80.

Feather, John and Anne Lusher. 1989. "Education for Conservation in British Library Schools: Current Practices and Future Prospects," *Journal of Librarianship*, 21(2): 129-138.

Harvey, Ross. 1993. *Preservation in Libraries: a Reader*. London: Bowker-Saur.

IFLA. 1998. Principles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Library Materials, comp. & ed. by Edward P. Adcock with the assistance of Marie-Thérèse Verlamoff and Virginia Kremp. Paris: IFLA-PAC.